

남도 '음식 마케팅' 뜬다

목포 '5미거리', 여수 '맛집', 신안 '좋은식단 운동' 등 특화

지역 대표 음식을 관광자원화하는 '음식 마케팅'이 뜨고 있다. 전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을 맛거리로 특화시키거나 유명 맛집을 지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유달산 일대를 '목포 5미(味) 맛거리'로 조성한다. 목포 5미는 지역 대표 음식인 흥어와 낙지·갈치·민어·꽃게 요리를 의미하며 유달산 등구~덕인집~구 중소기업은행까지 총연장 453m에 맛집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오는 10일까지 '목포 맛거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목포시에 주소(영업장)를 두고 음식업 경력 5년 이상 인자(업소)이며 최고 2천만원까지 건물 수선비를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영업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매월 임대료의 50%를 1년간 시가 부담한다. 여수시는 최근 교육청 등 10개 단체 임·직원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대표 음식점 16곳을 선정했다. 이들 음식점에는 '맛집'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된다. 맛집에 선정된 음식점은 ▲구백식당(서대회) ▲산골식당(봉장어탕·구이) ▲두개비식당(계장백반) ▲아구회관(아구탕·찜) ▲남경전

북(전복) ▲산월(삼치회) ▲돌산해물(조개구이) ▲한일관(한정식) ▲남해생선구이(생선구이) ▲미소쌀밥(쌈밥) ▲원조명신나치(낙지볶음) ▲원조골구이(골구이) ▲경도회관(참장어 샤브샤브) ▲진미꽃게탕(꽃게탕) ▲오죽현(한정식) ▲해금정(일식) 등이다. 신안군은 관광객들에게 청정신안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남도좋은식단 신음식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우선 모범업소와 자율 실천업소 35개소 중에서 3곳을 대상으로 신안지역 만의 독특한 맛집 개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컨설팅

을 실시했다. 음식문화개선 컨설팅은 전문 경영컨설턴트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 경영진단, 객실환경, 식단구성, 친절교육 등 실천방법을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소종사자 위생복 400벌을 보급하고 신음식문화개선운동 리후렛 6천500부를 제작 배부했다. 이밖에 무안군은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무안읍에 지난 2006년 무안갯벌세발나치거리를 조성했다. 나치거리에는 40여개 음식점이 다양한 나치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 영산포 흥어거리에는 3~4년전부터 흥어전문 음식점과 도매상 30여곳이 집단으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중합

"가축 폐사, 태양광발전소와 무관"

전남도 "독일 등 외국사례 계속 파악 하겠다"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사의 가축이 폐사한 것과 관련해 4일 해명자료를 내고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폐사 폐사나 발작물 고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송전선로 아래나 텔레비전 근처에서 측정된 전자파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며 "전자파로 인한 가

축 폐사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가축이나 농작물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문헌 등을 통해 계속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태양광 발전소측은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했

으며 청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가축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 작전면 권모(54)씨 등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인근에서 기르던 돼지 등 가축이 폐사하고 주변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피해를 봤다며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홍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광 '태양초 고추시장' 부활

시설 현대화 사업...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한때 전국 3대 고추시장으로 꼽혔던 영광군의 '태양초 고추시장'이 새로 단장됐다. 지난 2004년부터 60여원이 투입된 태양초 고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3년여 공사 끝에 6일 개장한다. 영광군 신리리에 있는 태양초 고추시장은 1990년대부터 충북 음성군, 경북 영양군과 더불어 전국 3대 고추시장으로 유명했으나 2000년대 들어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없어 쇠락의 길을 걸어 왔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도 발차를 타고 내려와 도매로 떼어 실어가던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지자 영광군이 '옛 명

성을 되찾겠다'며 시설 현대화에 나섰다. 영광군은 시장 주변에 도로 560m를 새로 개설하고 16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또 손님이 상인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비 가림 시설을 만들었고 시장이 이른 새벽부터 열리는 점을 고려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새로 설치했다. 태양초 고추시장의 첫 장은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영광지역 고추 재배 면적은 1천여 ha로 전국의 2%, 전남 지역의 1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국 3대 고추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영광군 '태양초 고추시장'이 주차장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6일 개장한다. <영광군 제공>

완도 가용~영풍 국도 4차선 30일 개통

완도 가용과 군의 영풍 간 국도 4차선이 오는 30일 개통된다.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와 해남 남창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 가운데 가용~군의 영풍 구간을 1년 앞당겨 30일 개통한다. 완도읍 가용리 장보고 마트 앞에서 군의 영풍리까지 9.8km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차량 운행시간이 10여분 단축돼 연간 33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완도~해남간 국도 확장공사는 완

육과농협 '다문화 여성대학 축제'

곡성 육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이 4일 육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다문화 여성대학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다문화 결혼 이민자와 주부대학, 실버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 개강식때 결연을 맺은 친정 부모와 함께 어울려 운동회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 '다문화 여성대학'은 지난 9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에 걸쳐 한글과 예절교육, 현장체험 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계경기자 kjkim@



영암 금정농협 '농산물 품질 경영대상' 수상

영암 금정농협(조합장 박찬원·사진)이 농산물 판매사업과 유통혁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2월 '농산물 품질경영대상' 수상조항에 선정됐다. 농산물품질경영대상은 2004년 9월 통합농협 2기 출범과 함께 제정·시행돼 농협의 판매사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산지조합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영암 금정농협은 499ha의 재배면적에서 국내 대용감 생산량의 15%인

연간 6천600t을 생산, 110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203 생산농가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을 받아 대용감의 체계적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구축, 농가 소득증대와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장흥 관산 소도읍 사업 선정 공로 다툼

장흥군 관산읍이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두고 집행부와 의원들간 공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소도읍가꾸기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국·도비로 충당된다. 관산읍은 최근 사업대상지로 선정

최근 열린 군의회 사무감사장에서 A도 의원은 "장흥군 대표전화로 관산읍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데는 B의원의 공로라는 문자메세지가 해당 주민을 휴대폰에 전송됐다"며 "집행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내에서도 사업 선정에 대한 생색내기 입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남성 헤어 기능장 **大山프리모님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님네기발**

565-8888 '시합세상 방문'

가발

조슬림!!

귀하의 훌륭한 외형을 보여주는 정당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우전화: 020-873-5858, 872-8822
전통머리: 011-887-5300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0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7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99,000원

문의: 064-744-1109